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萊地域 造營活動

徐致祥

(東明情報大學校 建築學部 教授)

주제어 : 梵魚寺, 僧人工匠, 東萊, 官營工事, 造營活動

1. 머릿말

梵魚寺는 新羅 興德王 10년(835)에 義湘이 華嚴十刹의 하나로서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예로부터 왜구의 침탈이 잦았던 이곳은 군사적 요충의 하나로서 중시되었다. 그래서인지 지역 사찰에 대해서도 군사적 역할이 요구되기도 했던 것 같다. 梵魚寺 창건설화가 그 예로서 남방방어를 위한 裨補寺刹로 경영되었다는 내용¹⁾이 이를 시사한다. 이후 梵魚寺는 어떤 이유에 선지 한동안 사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로 유지되다가²⁾ 임란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703년 府의 서북쪽 金井山에 산성을 쌓을 때 僧營寺刹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 무렵 梵魚寺는 임란 때의 피해로부터 거의 벗어나 있었다. 특히 산성 안에 새로 건립한 2개의 僧營寺刹을 ‘境內寺刹’로 거느리면서

대중수가 4백 명을 웃도는 대찰로 성장했다. 이미 80여년에 걸친 복구공사를 완료한데다 많은 수의 승려를 거느림으로써 자체적인 조영기반도 충분히 갖추 수 있었다. 사찰 공장 중에는 專業的으로 활동했던 이들도 많았고, 관부의 요구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을 만큼 역군도 충분히 확보하게 된 것이다.

梵魚寺는 이를 바탕으로 사찰 밖의 공사에도 공장과 역군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특히 산성 축조를 계기로 관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건축생산의 중추로서 자리 잡았다. 金井山城과 東萊府城 축조 때 역군의 주축은 梵魚寺 승군이었고, 公廩나 鄉校 조영 때 공역을 맡았던 기술자도 소속 공장들이었다. 梵魚寺는 이 지역의 유력한 조영집단이었던 셈이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梵魚寺의 지역 조영활동을 건축생산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³⁾ 梵魚寺가 공역을 주도했던 1703년 이래의 金井山城 축조나 1730년의 東萊府城 축조는 지

1) 「梵魚寺創建事蹟」(1700) ‘金井梵魚’와 ‘倭寇鎮壓顯夢’ 설화의 佛力으로 왜구를 진압했다거나 彌勒殿 등의 佛菩薩像이 병기를 들고 전투에 임하는 모습으로 모셔졌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2) 「冥府殿重修有功記」(1891)에 梵魚寺가 한 때 竹田이란 곳에서 옮겨졌다고 하므로 한 때는 폐사의 위기에 처하기도 한 것 같고, 조선초기에는 寺社革去 조치로 크게 황폐화되었음이 분명하다.

3) 이와 관련한 연구는 金淑瓊의 「朝鮮後期 梵魚寺의 造營에 관한 研究」(2000, 부산대 석논)와 尹用出의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韓國文化研究 2』, 1989)이 있다. 金淑瓊은 梵魚寺의 조영을 주제로 승인공장이 향교조영 등에 차출된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尹用出은 烟軍 부역을 주제로 僧軍의 동원을 고찰한 바 있다.

역의 건축생산력을 총동원해야만 가능했던 대규모 공사였고, 산성 내에 僧營寺刹을 짓는 일은 官寺의 장건과 다름 없는 대규모 사찰조영이었다. 또한 승인공장들이 공역을 전담했던 몇 차례의 鄕校 이건공사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아조영이었다.

그런 점에서 당시 梵魚寺의 조영활동이 지역 건축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시의 대표적인 조영사례를 대상으로 梵魚寺 조영인력의 공역활동과 그 추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건축생산에서 차지하는 梵魚寺의 기술적 수준과 독점적 위치를 통해서 사찰 조영집단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지역건축생산에서 차지하는 사찰 조영인력의 위상과 성격을 규명하는 기초적 작업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2. 朝鮮後期 東萊地域과 梵魚寺

2-1. 東萊地域의 工役與件

동래의 관제는 일찍부터 軍鎮 중심으로 편제되어 왔다. 태조 때 兵馬使兼判縣事를 둔 것을 시작으로 세조 12년(1466)에 鎮管 체제가 갖춰짐으로써 동래현령은 節制都尉의 군직을 겸하도록 했다. 명종 12년(1547)에는 ‘客使往來初程處’라 하여 對日 창구로 중시되면서 都護府로 승격된 이래 堂上文武官으로 부사가 임명되었다. 특히 임란 이후 ‘南邊之關隘’, ‘倭寇之要衝’ 혹은 ‘海防重地 賊路初程’이라 하여 효종 6년(1655)에는 慶尙左道兵馬節度使營 관하의 慶州 鎮管에 속했던 것을 獨鎮으로 독립시켰으며, 숙종 16년(1690)에는 부사가 防禦使를 겸직토록 했다. 영조 15년(1739)부터는 부사가 守城將을 겸하면서 東萊鎮兵馬僉節制使와 獨鎮兼守城將의 직함을 갖는 등 중요한 海防 기지의 하나였던 것이다.⁴⁾

그럼에도 17세기 말엽까지 동래지역의 실질적인 방어태세는 허술한 편이었다. 1675년 승

지 權大載의 보고에는 군사시설이 거의 마련되지 못하고 병력도 크게 부족한 형편이라 했다. 또한 이곳 倭館에 왜인이 많을 때는 1,000명인데 반해서 단지 5초의 束伍軍 밖에 없으며, 별무사 군관이 6, 7백 명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有關勿補’하며 타역에 移定함으로써 매우 허술하다고 했다. 府城도 임란을 겪고 난 후 ‘夷無基址’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金井山과 梵魚寺를 포괄하는 산성 축조를 건의⁵⁾한 이래 1702년에 관찰사 趙泰東의 건의로 마침내 金井山城이 축조된 것이다.

이어서 1730년에는 府城도 대대적으로 수축되었다. 두 차례의 호란을 겪고, 북벌의 논의도 좌절된 肅宗代 이후 淸과의 관계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남변 방비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였다. 1700년대 초의 산성과 부성 축조를 계기로 지역의 軍鎮이 확충되면서 軍額도 크게 증가된 것이다.⁶⁾

한편 임란 때 완전히 파괴된 府의 관아나 향교의 복구작업은 일찍부터 추진되었다. 1605년에 향교의 大成殿을 짓고, 1626년에 府의 公須廳을, 1636년에는 東軒과 綏帶軒 등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향교 일곽이 완성되기까지 80여년이 걸렸고, 府의 관아도 100여년이 지나서야 제 모습을 회복할⁷⁾ 정도로 지역의 공역사정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두 차례의 축성 이후 군액이 크게 증가되어 공역부담 남정에 비해 役摠이 과다해짐으로써 생긴 결과였다. 예로서 1740년에 身役 대상자가 10,276명인데 반해서 응역자는 9,616명에 불과했다.⁸⁾ 1774년의 경우도 역총은 12,450명인데 반해서 남정은 12,594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노약자와 儒校生 등 면역자가 5,713명이었고, 응역자는 6,881명으로서 첩역자가 5,569명에 달했다. 군진이 집중된 지역의 ‘軍多民少’ 양상은 첩역의 폐단이 생길 정도로 공역동원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

5) 『肅宗實錄』 肅宗元年 二月 六日 甲午條

6) 尹用出, 앞 책, p.90

7) 『營建事蹟記』 등에는 1705년에 客舍가, 1705년에 鄕廳, 1724년에 晦息堂, 1731년에 燕深堂이 완공되었다고 했다.

8) 『東萊府誌』 (1740), 各廳武夫, 軍摠, 人吏官屬雜差

4) 尹用出,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韓國文化研究 2』, 1989, p.89

이러한 상황에서 민정을 대신할 수 있는 부류는 승려 밖에 없었다. 물론 이 시기는 국가적으로도 민간 徭役의 대부분이 僧役으로 대체되는 추세였다.⁹⁾ 이 지역에서도 1730년의 府城 축조 후부터 ‘募民修築’의 원칙에 따라 烟軍 대신에 募軍을 고용하도록 규정되고 있었다.¹⁰⁾ 雇價를 부담해야 하는 募軍 대신 무상 징발이 가능한 역군은 승군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이 지역에는 적지 않은 승군이 존재하고 있었다. 1713년부터 梵魚寺와 함께 산성내의 國淸寺와 海月寺에는 수성과 수축을 위한 僧作隊¹¹⁾라는 일종의 상비군이 편성되어 있었다. 1740년의 경우 僧作隊의 수가 316명이었고,¹²⁾ 양산과 기장의 승군을 합치면 수천 명에 달한다¹³⁾고 했다. 僧作隊는 언제든지 동원이 가능했고, 수천 명에 달하는 지역승군도 적시에 동원 가능한 역군이였다.

이러한 僧役은 사찰을 곤경에 빠트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관부의 입장에서 역군의 확보라는 현실적 필요성으로 그 존재를 인정해야 했고, 사찰로서도 관부나 왕실에 줄을 대는 등 寺勢 확장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¹⁴⁾ 梵魚寺의 경우도 산성 축조를 계기로 관부의 협력을 얻는¹⁵⁾ 한편 소속 승군들은 관영공사의 공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어려운 지역 사정에도 대규모 축성공사와 관아조영

이 추진될 수 있었던 데는 梵魚寺의 공역활동이 크게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이다.

2-2. 梵魚寺의 工役基盤

임란 때 360房소가 완전히 소실된 梵魚寺는 이후 1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고 있었다. 그런 것을 1602년에 觀禪師가 일부를 복구하지만, 이내 큰불로 전소되고 말았다. 다시 10여년이 지난 1613년에 妙全이 주지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복구가 시작되었다. 먼저 3칸의 海會堂을 짓고, 다시 大雄殿과 觀音殿, 尋劍堂 건립¹⁶⁾을 시작으로 이후 80여 년간 복구공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당시 妙全 등이 복구한 건물들은 얼마 안가서 대부분 옮겨지거나 다시 크게 지어졌다. 임란 직후의 십 수명에 불과했던 승려들로는 소규모 공사를 추진하면서 복구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50여 년이 지나면서 복구공사는 크게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1658년에 自修와 海敏 등이 法堂을 새로 지으면서 龕藏재목으로 地藏殿을 짓고, 1662년에는 曹溪門을 새로 짓는 등 寺域도 크게 넓혀갔다. 1694년에는 海敏 등이 毘盧殿과 曹溪門을 중수하고, 1699년에는 淸風, 尋劍, 圓應, 安心, 舍弘, 解行, 枕溪, 金堂 등 8 방사를 새로 지었으며, 1700년에는 普濟樓와 鐘閣을 창건함으로써 佛殿과 寮舍, 門樓 등을 갖춘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제 梵魚寺는 80 년간의 지속적인 복구를 통해서 다양한 공사경험을 축적한데다 승려 수도 3백 명을 넘게 된 만큼 공사인력도 충분히 보유하게 되었다. 외부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오히려 자체적인 공역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1700년 초부터 사찰 造營記文의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도 사찰의 공역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반증

9) 인조 8년(1630)부터 영조 33년(1757)까지 山陵役에만 23회에 걸쳐 수천 명의 승군들이 동원되었고, 築城과 堤堰築造에까지 징발되고 있었다.

10) 尹用出, 앞 책, p. 45, 1730년 府城 축조 직후에 마련된 「守城節目」에 축성역에는 募軍을 고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후로도 그 규정이 반영되고 있었다.

11) 僧將 휘하에 승군으로 편성된 일종의 군대조직이었다. 兩亂 이후 南漢山城과 北漢山城 등의 수축 때 승려를 동원하면서 守城役에도 활용하면서 생겨났다.

12) 『東萊府誌』(1740) 軍總條

13) 『肅宗實錄』 肅宗 三十九年 八月 十一日 丙戌條

14) 이에 대해서는 朴容淑, 「朝鮮祖 後期の 僧役に 관한 考察」, 『부산대학교논문집』 제 31집, 1981, p.506에서 참고된다.

15) 1703년과 1708년 國淸寺와 海月寺의 창건 때와 1712년의 梵魚寺 大雄殿 중창 때 관찰사 주도로 비용을 마련했고, 1767년 鐘樓 이건 때도 부사가 모금에 앞장서고 寺稅나 徭役을 탕감해 주기도 했다.

16) 「慶尙南道東萊郡金山梵魚寺事蹟碑銘并序」, 「李朝宣祖二十五年兵火燹盡也 經劫餘衆小規結構 只守空墟過十年 壬寅住持妙全與玄鑑戒環創大雄殿」, 「冥府殿重修有功記」(1891) ‘癸丑秋 先成海會堂三間 仍爲山役 至萬曆四十二年甲寅七月日 畢成法堂’

한다. 종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공역담당자가 기록될 뿐더러 主管僧을 비롯해서 化主와 施主, 都監, 別座, 負木 등의 소임별로 나눠 맡았다. 공장의 수도 많아지고, 역종도 이전보다 세분해서 기록되기 시작했다.¹⁷⁾ 사찰 대중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자족적인 조영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梵魚寺의 승인공장 중에는 사찰 안팎의 공사에서 전업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매년 관아조영에 참여해서 都大木이나 都片手와 같은 공역책임자로 일할 정도로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았다. 그런 탓에 당시 지역 관영공사의 공장조직은 항상 梵魚寺 승인공장 일색으로 구성되었다. 대개 10명 안팎에서, 때로 수십 명에 이르는 공장 중에서도 민간공장은 야장에 불과했고, 간혹 3, 4명 내외의 민간공장이 참여한 경우도 공역책임은 승인공장이 맡았던 것이다.

현재로서 기록이 전해지는 1704년의 鄕校 이 건공사 이래 몇 차례의 공사는 이러한 梵魚寺 공장의 공역활동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후 민간공장이 공역을 주도하기 시작한 1700년대 말까지 梵魚寺는 뛰어난 기술자를 대거 보유하면서 조영집단으로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梵魚寺는 지역 최대의 건축생산거점이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3. 梵魚寺의 地域 造營活動

3-1. 東萊府城의 築造

고려 때부터 축조된 府城은 임란 전인 世宗 28년(1446)과 선조 24년(1591) 두 차례에 걸쳐 수축된 기록이 있다.¹⁸⁾ 이후 임란 때 크게 파

괴되어 오래 방치되다가 1730년에 대대적으로 수축되었다. 앞서 1702년에 산성을 축조하면서 府治도 함께 옮기기로 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자 대신 府城을 수축하게 된 것이다.

1730년의 축성역과 관련해서는 「東萊府築城謄錄」(1731)에서 추진과정과 역군동원의 형태, 府城에 관한 節目 등의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당시 부사 鄭彦燮의 주관 하에 그가 마련한 米 4,500석, 布 1,550필, 錢 13,400냥으로 둘레 2,880步의 성곽을 수축하고, 성문과 문루를 새로 짓는 대규모 공사였다. 먼저 성곽은 동, 서, 남, 북의 4소로 구분해서 쌓고, 성문과 문루는 동, 서 남, 북 및 암문 등 5문으로 역소를 나눠서 여기에 浮石 3소를 별도로 두고 진행하여 완공까지 대략 93일이 소요되었다.¹⁹⁾ 또한 성문과 문루 공사는 석축작업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는데, 가장 늦은 남문이 162일로서 완공

표 1. 동래부성 축조 때의 역군별 동원상황

구분	부역인원	연인원	부역일수
연군	29,916명	192,505명	2-18일
부조군	5,987명	12,221명	1-10일
승군	7,901명	181,482명	8-55일
사군	8,199명	30,843명	3-4일
계	52,003명	417,050명	

까지 대략 5개월이 소요되었다. 단순노역인 석축작업에 비해서 장기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건축공사가 69일이 더 소요된 것이다.²⁰⁾

한편 이 기록에 적힌 역군의 수와 부역일수에서 梵魚寺 승군들의 주도적인 공역활동을 살

17) 1700년의 普濟樓 창건 때 治匠 1인을 제외한 首頭 祖軒과 懷英 이하 片手 祖遠 등 9인, 引鉅 存述 등 3인, 盖匠 이 각각 1인이었고, 1702년의 普濟樓 丹甍과 1712년의 法堂 중창에는 都大木 아래에 14명의 片手와 6인의 治匠, 3인의 片將, 5인의 畫員 등 수가 늘어났다.

18) 尹用出, 앞 책, p.94, 고려 顯宗 12년(1021)과 禰王 13년(1387) 각각 수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종 28년(1446)에 당시 東萊縣令 金時露가 민정을 징발해서 수축했으며, 宣祖 24년(1591)에 적침을 우려해서 三南의 군사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수축한 바 있다.

19) 「東萊府築城謄錄」(1731)의 東所를 예로서 공사일정은 1730년 1월 27일 開基始役 2월 6일 曳石始役 3월 24일 畢 3월 6일 築城始役 4월 20일 畢役 4월 22일 女牆始役 4월 30일 畢 로 정리된다.

20) 「東萊府築城謄錄」(1731)의 東門과 門樓를 예로서 1730년 3월 11일 曳石始役 4월 25일 畢 4월 19일 虹霓治石 5월 10일 鋪石 5월 15일 立柱石 7월 25일 畢役 7월 27일 門樓立柱, 上樑 8월 20일 畢役 9월 3일 丹甍始役 9월 23일 畢役 으로 정리된다.

퍼 볼 수 있다. 역군은 포함 52,000여명으로 僧軍을 비롯해서 烟軍과 扶助軍, 私軍 등 연인원 417,050명에 달했는데, 그 주축은 烟軍과 僧軍이었다. 표 1은 공사에 동원된 역군별 부역인원과 일수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烟軍과 僧軍이 연인원의 90%에 달했다. 그런데 연군 부역일수는 동래 거주자에 한해서 18일이었고, 나머지는 2일에 불과했다. 또한 扶助軍도 華池寺 승군 20명이 10일을 일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1, 2일씩 일했으며, 募立制의 방식으로 고용된 私軍은 3, 4일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서 경상도 65읍에서 차출된 승군은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55일에 달했다. 8일 부역도 밀양승군의 2차 동원 때였고, 9일은 진보나 영양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이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20일 이상씩 동원되었다. 이처럼 烟軍 등의 부역일수가 단기간인 것을 보면 대부분이 집약적 노동력이 요구되는 단순노역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梵魚寺를 비롯한 동래승군은 부역일수가 55일로서 가장 길었으며, 인근의 울산과 경주, 기장과 양산의 승군도 30일 전후로 동원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발휘해야 하는 전문적인 공역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표 2는 승군의 인원과 부역일수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동래승군은 그 수가 가장

표 2. 지역승군의 부역인원과 부역일수

구분	부역인원	부역일수	비고
동래부	560명	34일	1차
	420명	55일	2차: 五門축조
기장군	117명	25일	1차
	100명	10일	2차
양산군	200명	25일	1차
	150명	12일	2차
계	1,547명	161일	

많았고 두 차례나 동원되었다. 다만 2차 때의 동래 승군 만든 ‘又四百二十名 五十五日赴役干五門’이라 따로 부기되어 있다. 이들은 梵魚寺와 그 말사 승군들로서 420명이 재차 동원된 것이다.²¹⁾

그런데 이들이 투입된 역소는 5개소의 城門

과 4개소의 門樓였다. 따라서 동래승군의 동원 시기는 1차로 성곽 축조가 시작되는 1월 말경이었고, 2차는 성문과 문루의 건설이 시작되는 3월 중순이었음을 알 수 있다. 梵魚寺 승군들은 성곽 축조는 물론이고, 특히 성문과 문루 공사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동래 승군에 대한 2차례의 동원과 五門의 축조공사에 투입된 사실은 당시 梵魚寺 등이 지역의 건축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여실히 말해준다. 성곽 수축이 비교적 단순노역인데 반해서 五門 건설은 건축공사가 위주였고, 공장역군이 梵魚寺 주축의 승군이었던 것이다. 烟軍을 비롯한 많은 역군들도 동원되었지만 이들은 대부분은 단순노동을 수행한 데 반해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건축공사는 僧軍들이 맡았다. 당시 공역기반이 가장 건설했던 조영집단이 梵魚寺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2. 金井山城의 築造

부의 서북쪽 金井山에 성을 쌓는 일은 임란 이후 50여 년이 지나면서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702년에 감사 趙泰東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이어서 부사 朴泰恒의 주관 하에 1702년부터 이듬해까지 둘레 9,011 步, 높이 15 尺의 석축 성곽을 쌓게 된 것이다.

그러나 축성을 주도했던 趙泰東의 비리에 대한 고변이 뒤따르고, 城域이 너무 넓어 방어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래서 완축에 이르지 못하고 중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거의 다 쌓은 산성을 폐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하여 1707년에 부사 韓配夏로 하여금 中城을 새로 쌓게 했다. 둘레 5,646 步의 성곽을 기존 외성의 좌우를 가로지르는 식으로 쌓고, 성 안에 守城과 修築을 위한 將臺, 中軍所, 教鍊廳, 別典廳, 軍器監, 官色庫, 都訓導, 軍牢, 門直 외에 僧將所, 中軍僧將代將 등의 건물도 짓게 되었다. 1703년의 공사는 성곽축조에 그쳤던 데 반해서 1707년에는 건축공사도 병행된 것이다.

현재로서 당시의 공역상황은 확인이 쉽지 않

21) 「東萊府築城曆錄」(1731)

다. 다만 두 차례 모두 지역의 건축생산력을 총동원했던 대규모 공사였으므로 1730년의 부성 축조 때와 같이 烟軍과 僧軍을 주축으로 진영의 軍校 등을 함께 동원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烟軍은 1655년의 축성 논의 때 읍민 부역이 논의된 바 있고, 軍校도 축성 이래 수축의 여부는 감사를 비롯한 釜山鎭 僉使와 水使, 兵使 등이 함께 협의토록 했다. 또한 監官의 대부분을 진영의 軍校들이 맡았던 데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역군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전제된 것은 승군이었던 것 같다. 앞서 1675년에 權大載의 건의에서 梵魚寺를 포괄해서 쌓기를 건의한 바 있듯이 ‘募僧建刹’ 하는 대신 기존의 梵魚寺를 僧營寺刹로 삼고, 승려들을 역군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은 무산되고 별도의 두 僧營寺刹을 성곽 내에 건립했지만 梵魚寺를 포함해서 세 사찰을 境內寺刹로 묶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승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713년의 判決事 李正臣의 상소에도 ‘梵魚寺境內寺刹’의 승군이 그대로 僧作隊로 편성되어 그 수가 4백 명 이상으로 인근까지 합치면 수천 명으로서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²²⁾고 했다. 상당수의 梵魚寺 승군이 축성에 동원되어 수성군으로 전환되고, 별도로 동원된 일부 승군은 國淸寺와 海月寺에 소속되어 僧作隊를 편성하게 된 것이다.²³⁾

한편 梵魚寺 등의 僧作隊는 이후의 성곽보수에 상시적으로 동원되었던 것 같다. 1709년에 부사 權以鎭이 파손된 성곽과 標樓의 복구를 건의한 내용에 승군과 읍민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²⁴⁾ 烟軍 사역이 필요하다는 이 주장에는 평소의 부분적인 수축은 梵魚寺 등의 僧作隊와 성 내의 일부 민정이 맡아 왔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군동원 방식은 1808년의 再築 때 크게 바뀌지 않았다.²⁵⁾ 이는 공사를 주관한 부사 吳翰源의 상소에서, 성 내외의 승군과 창고 부근에 사는 백성을 주축으로 삼고, 여기에 양산, 기장, 언양, 밀양 등의 東伍軍을 붙여서 수비할 것을 건의했다.²⁶⁾ 산성 안에 상당수의 僧作隊가 상주해 있었고, 여기에다 1백여 호의 민정이 우선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규모 공사였던 만큼 烟軍을 사역시키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10년을 기한으로 농한기에 민정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²⁷⁾

당시의 공사는 그해 가을에 시작해서 이듬해 여름에 완공을 보는데, 부사 吳翰源이 쓴 「金井山城復設碑」(1808)에는, 정묘년 가을에 토목 공사를 잇달아 일으켜 한 달 만에 동문이 준공하고, 이듬해 첫봄에 기둥과 들보를 백리 밖에서 운반해 오는 등 149일 만에 서, 남, 북의 雉樓가 완공했다고 한다. 또한 창고를 사방으로 통하는 거리에 새로 설치했으며, 여러 골짜기의 물을 끌어 江海로 통하게 하고, 삼십 리에 이르는 성곽을 평탄히 고르는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²⁸⁾고 했다. 이처럼 건축공사도 함께 추진됨으로써 많은 인력이 동원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監營과 兵, 水營에까지 공역지원을 요청한 것을 보면 府의 吏束와 鎭營의 軍校 등이 감동이나 역군으로 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부역한 동래 사람들이 보고 依歸할

25) 『純祖實錄』 純祖 七年 九月 十六日 甲寅條, 좌의정 李時秀가 감사 尹光顔과 부사 吳翰源의 覆啓를 근거로 오래 방치된 산성 개축을 건의함으로써 추진되었다.

26) 「上疏草」(1806), ‘其所守之法則 梁機彥密等邑 近爲三四十里 遠不過百里 以此各邑之東伍 付之山城 而使臣府主管 操鍊則 合城內外僧軍 及倉底居民 不憂其不能守矣’

27) 「上疏草」(1806), ‘今以築城之役 一付之臣府 限之以十年 責之以徐圖則 紓民力 而無奪農之患 因舊址而有省費之効 而至如倉舍之移設 城樓改建則 材瓦之用 工匠之費 所入不啻以若臣府之力綿 誠無以自辦 此則含有區劃之方 而亦不必更損國家之經用 只令本道監營及兵水營 各其助力 期於訖功則 道帥臣 亦必有量宜措置之道’

28) 「金井山城復設碑」(1808), ‘及至丁卯季秋 土木繼興 一月 東門成 翌年孟春 運柱樑於百里 斲蟻巖於崖巔 擔曳如雲 萬夫齊力 計百四十有九日 西南北譙樓成 設倉廡於四達之達 以均轉輸 導衆谷之奔流 以通江海 城起于平夷止千山頂 橫亘三十二里 而功 告訖焉’

22) 『肅宗實錄』 肅宗 三十九年 八月 十一日 丙戌條

23) 築城 후에 승군을 守城軍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시에 흔히 사용되던 방식이었다.

24) 『變例集要』 券十九, ‘山城破落 標樓壞仆 決非若干僧民所可修築 接慰官 今方下來 使之一一看審 歸朝之日 仔細陳設稟處 惑似使宜事 啓’

장소로 삼지 않는 이가 없어 즐거이 달려와 용감히 일했고, 감동한 이들이 幕佐와 여러 吏東軍校²⁹⁾라 했다. 승군과 연군을 주축으로 군교와 이속 등이 함께 동원된 것이다.

다만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지역관부의 烟軍 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였다. 그래서 役民해야 할 경우 巡營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야 했고, 연간 3일을 넘을 수 없었으며,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비변사에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했다.³⁰⁾ 이 지역에서도 1730년의 府城 축조 이래 ‘募民修築’의 지침에 따른 雇丁運用 원칙이 지켜져 왔으므로³¹⁾ 단기간의 동원에 그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烟軍은 장기간의 숙련기술이 요구되는 건축공사의 치목이나 입배공역에 투입되기는 어려웠고, 석물과 목재의 운송, 성곽수축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비숙련 작업에 투입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미 1730년의 부성 축조 때 梵魚寺 등의 승군이 건축공사에 장기간 집중 투입된 바도 있었다. 1806년 무렵의 성 안에는 직전에 중창된 國淸寺와 海月寺에 많은 수의 僧作隊가 상주해 있었고, 梵魚寺 승군들도 항상 동원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다만 이 무렵에는 지역의 민간공장이 크게 성장해 있던 만큼 당시의 건축공사는 梵魚寺 공장들은 이들과 함께 공역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사 吳翰源의 상소에 공장의 비용이 막대함을 언급했듯이³²⁾ 민간공장의 성장을 촉진시킨 노임제가 정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3. 僧營寺刹의 造營

금정산성에는 守城과 修築을 전담하기 위한 두 개의 僧營寺刹이 건립되었다. 1703년의 國

淸寺와 1708년의 海月寺가 그것으로, 애초 성안에 포괄되도록 계획한 梵魚寺 대신 새로 사찰을 지어서 境內寺刹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 무렵 전국에 산성을 쌓을 때 승군을 그대로 수성군으로 전환시키는 ‘募僧建刹’ 방식은 흔히 채택되고 있었다. 국가방위의 일환이었으므로 관부에서는 사찰조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주고 공사의 집행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래서 두 승영사찰의 건립 때도 관부에서 空名帖을 발급하여 공사비용으로 쓰게 했다. 애초 100장을 요청했으나 최종 발급된 것은 僧俗의 通政, 嘉善帖 70장으로 이로써 각지에서 모연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고에서 염출한 축성비용과 달리 사찰조영을 위한 비용은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다.³³⁾ 가급적 국가적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공역은 사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화주에서 감역, 공장, 그리고 역근까지 본사인 梵魚寺의 승려들이 공역 전반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海月寺 창건 때의 기록인 「法堂上樑記」(1708)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로서 29명의 시주자 중에서 處學이나 尙行 등은 梵魚寺 주지를 역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감, 별좌 등의 감역과 片將들도 梵魚寺 소속이었다. 특히 都木手 祖軒을 비롯한 4명의 공장 중에서 3명은 梵魚寺 조영기문에서 수차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서³⁴⁾ 이들의 대부분이 소속 공장임을 알 수 있다. 다만 1766년의 중창 때는 지역관부에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³⁵⁾ 監役

29) 「金井山城復設碑」(1808), ‘萊人赴之者 莫不視爲 依歸之所 樂趨勇往 其就也 若有神助 可見是役之成 成於衆心也 董事之幕佐諸吏校咸曰’

30) 尹用出, 『朝鮮後期 徭役制와 雇用勞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71

31) 尹用出,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韓國文化研究 2』, 1989, p.45

32) 「上疏草」(1806)에 ‘倉舍之移設 城樓改建則 材瓦之用工匠之費 所入不些’라 하여 공장 비용을 언급하고 있다.

33) 『變例集要』卷十九, ‘府使權以鎮時 金井城內 當營立國淸 海月兩寺 而物力無出處 若得空名帖百餘張 則或可以募緣四方 有成就事 啓 回啓 僧俗通嘉善帖七十張 參酌許給’, 공명첩은 조선후기에 원당사찰이나 승영사찰 등의 건립을 위해서 흔히 발급되고 있었다.

34) 祖軒은 1700년의 梵魚寺 普濟樓 창건 때의 首頭를 비롯해서 20년간 공역책임자로 일했다. 1704년의 鄉校 이건과 1705년의 鄉廳 이건 때 大木으로 일했다. 또한 1712년의 梵魚寺 法堂, 1718년 天王門 중창 때 都大木을 맡는 등 여러 공사에서 공역책임자로 일한 전업 공장이었다.

35) 海月寺懸板墨書銘 (1766), ‘歲惟丙戌 萊伯姜侯之仁哈 募得檀施之物 不數月 告厥成功’ 부사 姜弼履가 권문을 발급해서 본부, 진영과 읍민으로부터 모금했다.

官을 파견해서 공사를 감독토록 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의 기록인 현판 墨書銘(1766년)에

官定監官 千權 李世光
 都監兼僧將 帶熙
 法堂都片將 通政智玄
 食堂片將 通政成伯
 都木手 圓一
 法堂片手 振朋 守哲 性謙 會性 元旻 性察
 豐梧 最淑³⁶⁾

라 하여 2명의 감독관이 관부에서 파견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관련자는 대부분 境內寺刹 소속이었다. 都監 帶熙를 비롯해서 片將 成伯 등은 梵魚寺의 僧統을 지낸 바 있고, 都片手 圓一과 最淑도 梵魚寺 소속이었다.³⁷⁾

그런데 1700년대 후반 들어 이 지역에서도 소수였지만 민간공장들이 僧營寺刹의 조영에도 참여했다. 산성이 폐기된 채 방치되던 1795년 무렵 화재로 소실된 海月寺 중창 때 10명의 목수와 1명의 야장 중에서 5명의 민간공장이 참여한 것이다.³⁸⁾ 특히 공장의 우두머리인 都大木을 鄭麗眞이란 민간공장이 맡은 것을 보면 승인공장에 못지 않는 수준으로 기술이 향상된 것 같다.³⁹⁾ 이 무렵 민간공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아나 사찰에까지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化主에서 監役 등 공사관리자는 이전과 다를 바 없었고⁴⁰⁾ 특히 단순노역을 맡은 역군은 대부분 梵魚寺 승군이였다. 당시 梵魚寺가 74명, 國淸寺가 18명, 雲水寺가 8명으로 도합 100명의 승군이 동원된 것이다.⁴¹⁾

한편 오래 방치되던 산성이 1806년에 대대적으로 수축되고 관방의 기능을 회복한 탓인지 僧營寺刹의 조영에 대한 관부의 지원이 다시 시작되었다. 1825년에 國淸寺의 법당 3칸, 衆寮와 郎舍 등 13칸을 짓는데⁴²⁾, 이 때 監營에서 勸文을 발급해서 도내 사찰들과 각 읍 관아, 읍민 등으로부터 施主錢을 모금토록 했다.⁴³⁾ 당시 72처에서 모금된 액수는 683냥의 돈과 白米 20석에 달했다. 이와 함께 水營의 허가로 封山과 산성 내의 작별로 재목을 조달했으며, 운송을 위해서 읍민에게 1일간 부역협조를 얻기도 했다. 재원의 마련에서 재목의 벌목과 운송까지 관부의 지원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시주전은 가장 많은 액수인 50냥을 모금하고, 공장에서 역군까지 공사 전반을 책임진 곳도 梵魚寺였다. 국가방위의 차원에서 경영된 僧營寺刹의 조영도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찰이 도맡았던 것이다.

이후 18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僧作隊는 종전의 1/3 규모로 축소되면서 僧營寺刹도 크게 위축되어 갔다. 1740년에 316명이던 僧作隊의 규모가 1868년에 이르러서는 101명으로 줄어들어 드는 등 僧軍들도 僧作隊의 통제로부터 사실상 벗어나고 있었다.⁴⁴⁾ 그런 상황에서 僧營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은 당연했다. 海月寺는 두 차례의 큰 불로 소실된 후 자리를 옮겨서 작은 규모로 복구되고, 1백여 칸이 넘었던 國淸寺도 새 터에 겨우 13칸이 복구되는 정도였다. 僧營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

3-4. 東萊鄉校의 造營

임란 직후 府의 관아조영 때 승인공장이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소속도 알 수 없고, 한, 두 명이 민간공장 틈에서 일하는 정도였다.⁴⁵⁾ 그

36) 「海月寺懸板墨書銘」(1766)

37) 이에 대해서는 「禪刹大本山案内」(1947) <歷代首任及任期> 등에서 참고된다.

38) 「海月寺新基重創記文」(1795), ‘都片手 鄭麗眞 前面片手 寬湜 後面片手 萬岑 衆工 大淳 采定 金光得 海淸 道眼 金龍三 ○○○ 冶匠 辛拾○’

39) 1813년의 東萊鄉校 大成殿 이건, 그리고 1813년과 1831년의 梵魚寺 普濟樓 중수 때 都大木이나 都木手를 맡았던 寬湜과 萬岑 등을 제치고 민간공장이 都片手를 맡고 있다.

40) 「海月寺新基重創記文」(1795)에 기록된 성조도감 就洽은 梵魚寺의 70대 僧統을, 僧作隊의 僧將 得性도 77대 僧統을 지낸 바 있다.

41) 「海月寺新基重創記文」(1795), <境內各寺役軍秩>

42) 「國淸寺懸板墨書銘」(1825), ‘臘月旬三柱 旬七樑 以隆亓 暫停役 翌年夏 功告訖 法堂九三間 衆寮及郎舍并十三間矣’

43) 부사의 첩보에 따라 巡營에서 勸文을 발급해서 梵魚寺 境內寺刹 등의 6백 민과 각 읍의 3백 민이 모금되었다.

44) 尹用出, 앞 책, p.124

러나 1700년대 초부터 梵魚寺 소속의 많은 수가 참여하면서 민간공장을 제치고 공역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1704년 이래의 몇 차례 향교 이건공사는 지역사찰의 독점적인 공역활동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임란 때 소실된 향교는 1604년의 복설 이래 네 차례나 옮겨지는데, 梵魚寺가 공역을 전담한 것은 1704년과 1744년의 이건 때였다. 먼저 1704년 공사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⁴⁵⁾ 이처럼 단기간에 완료한 것을 보면 종전보다 지역의 공역사정이 상당히 호진되었던 것 같다. 梵魚寺가 공장을 대거 파견하여 공역을 전담했던 것이 그 증거이다. 예로서大成殿 공사의 경우를 보면

大木 祖軒
片手 寬天
衆工 懷安 英惠 文潭 以軒 智廳 碩只 張戒仁
李樹榮
治匠 姜述而⁴⁷⁾

라 하여 11명의 공장 중에서 衆工 2명과 治匠 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梵魚寺 소속이었다. 또한 東, 西廡 공사에는 9명의 공장 중에서 야장 1명만이 민간공장이고, 明倫堂에는 13명 중에 2명, 그리고 南樓에는 9명 중에 1명에 불과했다.⁴⁸⁾ 승인공장의 수가 크게 늘면서 그 위주로

조직이 편성되고 역종도 비교적 세분되었다.

특히 공장의 소속은 대부분 梵魚寺로 확인되듯이 梵魚寺는 뛰어난 공장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大成殿을 비롯한 네 건물의 大木을 맡았던 祖軒은 대표적인 專業工匠으로 1706년의 鄉廳 이건 때 大木을 맡는 등 사찰조영에서의 활동⁴⁹⁾을 합치면 활동기간은 20여 년에 달했다. 또한 향교 조영에 참여하지 않은 공장으로서 1694년의 梵魚寺 曹溪門 중수로부터 1712년의 大雄殿 중창까지 확인되는 30여명⁵⁰⁾을 합치면 거의 50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러한 공역기반을 갖춘 梵魚寺는 1744년의 이건 때는 공역을 완전히 전담했다. 당시 기록인 「層城下舊校南樓」(1744)와 「崇禎紀元後一百十七年甲子移建緣」(1744)에는 大成殿과 東, 西廡 공사 때의 공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大木 萬雄
片手 天瑞 會元 泰玉 雪安
衆工 法信 再英 淨安 學聖 會伯
治匠 崔明在⁵¹⁾

라 하여 10명의 승인공장 만으로 大木과 片手, 衆工 등의 역종을 맡았다. 공장의 수는 더 늘어나서 南樓의 경우에 17명이 일했으며,⁵²⁾ 세

45) 1635년의 東萊鄉校 大成殿 중창 때 都大木 都應每 등 7명의 민간공장만이, 그리고 1636년의 東萊東軒 중창 때 都應每 등 10명의 민간공장과 함께 察晶과 凝俊 등 소속을 알 수 없는 2명의 승인공장이 일했고, 1666년의 鄉校南樓 중창 때는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민간공장이 확인된다.

46) 「鶴巢臺下舊校營建時事蹟」(1704)과 「鶴巢臺下舊校南樓」(1704)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704년 5월 26일 大成殿 立柱
6월 7일 大成殿 上樑
8월 8일 東, 西廡 立柱
18일 東, 西廡 上樑
29일 神門 上樑
9월 3일 舊明倫堂 撤去
9일 明倫堂 上樑
10월 일 舊南樓 撤去
11월 2일 南樓 立柱, 上樑

47) 「鶴巢臺下舊校營建時事蹟」(1704)

48) 「鶴巢臺下舊校營建時事蹟」(1704), '東西廡 大木 祖軒

片手 寬天 衆工 懷安 英惠 文潭 以軒 智廳 碩只 治匠 姜述而 明倫堂 大木 祖軒 片手 寬天 淨彥 衆工 懷安 英惠 以軒 智廳 張戒仁 石手 寬性 應默 治匠 姜述而 南樓 大木 祖軒 衆工 文潭 智廳 以軒 碩只 謂成 守白 治匠 姜述而'

49) 祖軒은 1700년의 梵魚寺 普濟樓 창건 때 首頭로, 1712년의 大雄殿 중창과 1718년의 天王門 중창 때 都大木을 맡았으며, 1708년에는 海月寺 法堂 창건 때 都木手를 맡았다. 또한 淨彥과 寬天, 英惠, 文潭, 智聰, 智廳, 謂成 등도 1694년의 曹溪門 중수와 1700년의 普濟樓 창건, 그리고 1712년의 大雄殿 중창 때 공역을 맡았다.

50) 1694년의 梵魚寺 曹溪門 중수 때의 都大木 大玄과 懷英, 手手인 祖遠과 妙談이라든지, 1700년의 普濟樓 창건 때의 首頭 懷英과 片手 思式, 敏湛, 就洽, 孰能, 蓋匠인 繙伯, 引鉅匠 存述, 呂式, 存坦 등이 있었고, 1712년의 法堂 중창 때 片手 元湜, 存建, 位軒, 智淳, 智淡, 一摠, 海坦, 萬雄, 位淸, 그리고 片將 富價, 富性, 秋演, 1718년의 天王門 중창 때의 道鑑, 國信, 平日 등이 그들이다.

51) 「崇禎紀元後一百十七年甲子移建緣」(1744)

52) 「層城下舊校南樓」(1744), '大木 僧萬雄 衆工 雪安 任閑 會伯 世化 六初 禹連 天世 采連 學聖 天化 正眼 再英 聖元

건물 전체로는 22명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 민간공장은 冶匠 2명에 불과했다. 40여 년이 지나서도 공역체제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사찰 조영조직 만으로도 공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장조직은 승인공장 간에 기술의 상전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예로서 萬雄은 1712년의 梵魚寺 大雄殿과 1718년의 天王門 중창 때는 都大木 祖軒 아래의 片手였지만, 1744년의 향교 이건 때는 大木이었다. 26년이 지난 시점에 萬雄은 최고기술자로 성장한 셈이다. 祖軒과 萬雄이 최고기술자와 중견기술자로 대물림을 했듯이 승인공장들은 독자적인 조직을 이어갔을 것이다. 특히 19세기 초까지 梵魚寺의 암자와 房舍가 독립채산제로 운영⁵³⁾된 사실을 감안하면 승인공장들만의 독자적인 조직의 존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공역책임자의 지휘하에서 장기간 함께 활동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도 이를 방증한다.

한편 梵魚寺 공장들은 이후 두 차례의 향교 조영 때도 공역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1758년의 東, 西廡 중건 때는 大木 雷聰 이하 승인공장이 4명, 민간공장은 4명이었고,⁵⁴⁾ 1773년의 大成殿 중건 때는 大木 見學과 呂一 이하 승인공장이 10명, 민간공장은 6명이었다.⁵⁵⁾ 3, 4명의 민간공장이 참여했지만, 大木과 片手는 승인공장이 맡는 등 기술적으로 민간공장보다 여전히 우위에 있었던 것이다.

표 3은 1704년에서 1773년까지 네 차례 향교 조영에 참여한 역종별 공장수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70여 년간 이 지역의 관아 조영에서 공역은 거의 梵魚寺에 의존하고 있었

다. 특히 1704년 공사 때는 梵魚寺 공장만으로도 공역을 해결할 수 있었다. 1704년 이래 사찰 안팎의 공사를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공사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래선지 大木 이하 片手, 衆工, 冶匠의 호칭과 구성은 상당 기간

표 3. 1704년 이후 향교조영에서의 승인공장
() : 민간공장

구분	대목	편수	중공	석수	야장	계
1704년	대성전	1	1	6(2)	(1)	8(3)
	동서무	1	1	6	(1)	8(1)
	명륜당	1	2	4(1)	2	(1) 9(2)
	남루	1		6	(1)	7(1)
1744년	대성전	1	4	5	(1)	10(1)
	동서무					
	남루	1		15	(1)	16(1)
1758년	동서무	1	1	2(3)	(1)	4(4)
1773년	대성전	2	2	7(4)	(1)	11(5)

변하지 않았다. 梵魚寺가 공역을 맡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지역 관아조영의 공역체제로 정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784년에 향교는 다시 鞍嶺 아래로 이 건되는데, 먼저 大成殿과 東, 西廡를 옮겨짓고, 明倫堂 등은 3년 후에 완공했다.⁵⁶⁾ 일시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전과 달리 烟軍 사역을 금하고, 승군 동원도 여의치 않았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雇丁 운용의 원칙에 따라 雇價를 부담해야 했고, 공장에 대한 노임제도 정착되고 있었으므로 匠料의 부담도 컸던 것이다.⁵⁷⁾ 당초 마련한 재원이 고갈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런 반면 종전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민간공장이 참여했다. 당시 기록인 「大

最淑 法信 冶匠 鄭益輔'

53) 채상식, 범어사, 빛깔있는 책들 154, 대원사, 1996, p.31
54) 「崇禎紀元後一百十五年戊寅改建錄」(1758), '東西廡 大木 僧雷聰 片手 定聰 衆工 僧六禮 尹孟元 辛光弼 朴弼興 僧寶文 冶匠 池再明'
55) 「崇禎紀元後一百三十年癸巳改建錄」(1773), '大成殿 大木 僧見學 僧呂一 片手 僧清仁 僧智鵬 衆工 尹喜重 梁德三 僧太周 姜昌雲 丁玉善 僧元輝 僧心聰 僧太淳 僧得守 僧自性 冶匠 金得昌 僧快一'

56) 「大成殿堅柱上樑年月日時及主倅監任姓名書填錄」(1784년)에서 공사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84년 11월 11일 大成殿, 東西廡 立柱
15일 大成殿, 東西廡 上樑
1785년 봄 明倫堂, 東西齋 立柱, 上樑
1788년 5월 29일 南樓 立柱
6월 1일 南樓 上層 立柱
5일 南樓 上樑

57) 金東旭, 韓國建築工匠史研究, 기문당, 1993, p.244

成殿豎柱上樑年月日時及主倅監任姓名書墳緣」(1784)에는

都木手 金麗仲
 都片手 見學
 片手 僧義弘 洪鳳才
 衆工 金弘澤 梁萬燮 梁德三 金斗長 李東才
 僧處周 丁玉善 僧就堅 姜昌運 朴在右
 朴春興 金太明 僧大順 僧海清 僧允玉
 僧智坦 李英新 孫聖貞 僧心聰 李東茂
 林之奉 林福心 僧永閑 文仲鼎 尹明佑
 僧連化 金聖新 尹就雲 金時彩 趙得龍
 僧謹業 僧道安 僧永活 金成大
 冶匠 金得昌 辛險札
 鉅刀匠 鄭五作伊 閔太甲 李春成 金月龍 僧覺日⁵⁸⁾

라 하여 공장 수는 45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민간공장이 공역책임을 맡고 그 수도 30명에 달했다. 승인공장은 15명으로 종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都木手 이하 3, 4종의 片手, 衆工, 引鉅, 冶匠으로 구성되는 조직은 민간공장이 통솔했다. 金麗仲이란 공장이 1773년의 大成殿 중수와 4년 후의 南樓 개건 때 大木으로 일한 都片手 見學을 제치고 공역책임자인 都木手를 맡았던 것이다.

그런데 공역책임자의 호칭인 都木手와 都片手가 함께 사용되고 각각 민간공장과 승인공장이 맡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승인공장과 민간공장과 함께 일했던 만큼 都木手가 공역책임자이면서 민간공장을, 都片手는 부책임자로 승인공장을 통솔하는 위치였던 것 같다. 건물의 전, 후 또는 좌, 우 한 편을 책임지는 2명의 片手를 민간공장과 승인공장이 각각 맡은 것도 승인공장과 민간공장이란 이질적인 두 집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된다.

이후 1813년의 이건 때는 민간공장 주도의 공역체제가 완전히 정착된다. 「大成殿重修上樑文」(1813)에는 26명의 공장이 기록되는데, 승인공장은 3명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민간공장은 공역책임자를 포함해서 22명에 달했다.⁵⁹⁾ 이

러한 상황은 2년 뒤의 攀化樓와 明倫堂 공사 때도 마찬가지로 각기 16명과 11명 중에서 승인공장은 4명과 3명에 불과했다. 공역의 주도권이 민간공장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표 4는 1784년부터 1815년까지의 향교 조영에 참여한 공장을 정리한 것이다. 1784년부터

표 4. 1784년 이후 향교조영에서의 승인공장
 () : 민간공장

구분	도목수	편 수				중공	인거	야장	계
		도편수	부편수	진후편수	편수				
1784년	대성전	1 (1)			1 (1)	22 (12)	4 (1)	2 (15)	30 (15)
1788년	남루	1 (1)				1 (1)			4 (3)
1813년	대성전	1 (1)	3 (3)			2 (6)	4 (8)	1 (4)	3 (23)
1815년	남루	1 (1)		2 (2)		3 (6)	1 (1)		4 (12)
	명륜당	1 (1)		1 (1)		1 (5)	1 (1)		3 (9)

민간공장이 공역을 주도하면서 공장 수도 크게 늘어나서 1784년의 大成殿 공사 때는 45명에 달하기도 했다. 역중도 都木手와 都片手, 副片手, 전, 후 내지는 좌, 우, 그리고 片手 등의 호칭으로 세분되고 종전에 없던 引鉅匠이나 鉅刀匠이 많게는 5명에 달했다. 역중이 세분되면서 공장 수도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장 노임제의 실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의 경우 1784년의 향교 이건 때 감사의 狀啓나 1806년의 산성수축 때 부사의 上疏에서 공장의 비용이 언급되었듯이⁶⁰⁾ 이 제도가 정착되는 추세였다. 부역

59) 「大成殿重修上樑文」(1813), ‘都木手 金成大 都片手 僧寬湜 片手 朴桂源 金成宅 衆工 金聲大 裴進道 金仁福 姜順永 僧寬札 安來辰 徐成日 洪澤春 尹尙仁 金成喆 姜日元 鄭守奉 鄭先興 李聖貴 李言得 金尙三 僧定儀 冶匠 金得昌 鉅刀匠 朴萬福 張鍊孫 金岳只 林興實’

60) 「甲辰八月初三日以聖廟移建事巡使狀啓啓本」(1784), ‘積年拮据之物 以此雇軍 以此賃匠 自可以不擾一民 而了完大役是白乎所’, 「上疏草」(1806), ‘倉舍之移設 城樓改建則 材瓦之用 工匠之費 所入不貲 以若臣府之力綿 誠無以自辦 此則合有區劃之方 而亦不必使損國家之經用’

58) 「大成殿豎柱上樑年月日時及主倅監任姓名書墳緣」(1784)

노동과 달리 현실적인 匠料가 지급됨으로써 전문적인 민간공장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했다. 비록 17세기 후반 이래 중앙에서의 관영공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에서도 역종별로 세분되면서 전문성을 향상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민간공장은 사찰조영까지 공역활동의 영역을 넓혀갔다. 1813년의 梵魚寺 普濟樓 중수공사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당시 기록인 「梵魚寺普濟樓重創記」(1813)에 적힌 36명 중에 민간공장은 16명이었다.⁶¹⁾ 특히 1813년과 1815년의 향교 이건 때 공역책임자로 일한 木手 金成大와 金聖大는 都木手에 앞서 맨 위에 올려져 있다. 都木手 寬式이나 副片手 萬峯, 右片將 寬察⁶²⁾과 같이 경험이 풍부한 승인공장을 체치고 공역책임자로 나설 만큼 민간공장의 기술이 향상되었던 것이다.

이후 梵魚寺의 당우 조영 때 소속 공장이 공역을 수행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개는 민간공장을 보조하는 데 그쳤고, 그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⁶³⁾ 민간공장들이 크게 성장하는 한편에서 사찰 공장조직은 점차 소멸되어 갔던 것이다.

4. 맺는 말

조선후기 동래 지역의 공역여건은 양호한 편이 아니었다. 임란 때 완전히 초토화된 이 지역에 軍額이 확충되고 役聽이 크게 증가함으로

써 역군 동원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築城 공사가 두 차례나 추진되었고, 향교나 公廨의 건설도 잇달아 추진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지역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찰의 공역활동이 크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임란의 피해에서 벗어난 梵魚寺는 1703년의 산성 축조를 계기로 관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중 수가 4백 명을 웃도는 대찰로 성장해 있었다. 많은 역군과 뛰어난 공장을 보유함으로써 자체적인 공역기반을 충분히 갖추게 된 것이다.

梵魚寺는 이를 바탕으로 사찰 밖의 각종 공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1703년에 산성 축조 때의 역군은 烟軍과 함께 梵魚寺 등의 僧軍이 주축이었다. 이와 함께 산성 수축과 수성을 전담할 僧營寺刹인 國淸寺와 海月寺의 창건을 위한 공역도 전담했다. 국가의 필요에 따른 것인 만큼 관부에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고 감관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찰을 梵魚寺境內寺刹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역은 전적으로 梵魚寺가 맡았다. 이후 세 사찰의 승군은 그대로 僧作隊로 전환되어 오랜 기간 성곽의 보수를 책임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1730년의 府城 축조 때 승군은 2차에 걸쳐 장기간 동원되어 축성 공역을 맡는 한편, 별도로 성문과 문루 공역을 맡았다. 이 무렵의 梵魚寺는 뛰어난 공장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유력한 조영집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梵魚寺 공장조직은 1700년대 초부터 80여 년간 지역의 관아 조영 때 공역을 전담하다시피 했다. 1704년 이래 몇 차례의 향교 이건공사가 그 예로서, 1700년대 후반에 그 주도권을 민간공장에게 넘겨줄 때까지 梵魚寺는 조영집단으로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1744년의 향교 이건을 즈음해서는 승인공장 일색으로 大木 이하 片手, 衆工을 맡은 사찰 공장조직이 가동되고 있었다. 독자적인 房舍 체제로 운영되던 사찰 특유의 사제간

61) 「梵魚寺普濟樓重創記」(1813), '木手 金成大 金聖大 都木手 寬式 副片手 萬峯 右片將 寬札 左片將 裴進道 衆工 永有 幸澄 萬宗 志洵 太一 戒澄 勝仁 坦性 最洵 致淑 國活 定儀 國信 斗彦 國仁 趙龍得 李東彩 李願儀 金處信 方龍世 洪春奉 金龍雲 黃之憲 池和得 治匠 金福萬 蓋匠 朴 鉅刀匠 幻性 平一 張 朴'

62) 寬式은 1795년의 海月寺 중창 때 前面片手와 1813년의 향교 大成殿 공사 때 都片手를 맡았으며, 萬峯과 寬察도 여러 공사에서 공장으로 일했던 梵魚寺 공장이었다.

63) 1841년의 梵魚寺 一柱門 중건을 예로서 10명의 공장 중에서 승인공장은 3명에 불과했고, 공역책임자도 민간공장이었다.

기술의 상진을 통해서 1700년대 초부터 꾸준히 공장조직을 유지해온 결과였다.

그러나 이미 1730년부터 이 지역에서도 雇丁 운용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고, 특히 1700년대 후반에는 공장에 대한 임금고용의 징후도 확인된다. 1784년의 향교 이건과 1806년의 산성 수축 때 募軍의 노임이나 공장의 임금이 막대함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탓인지 1784년의 향교 이건 때는 종전에 비해서 많은 수의 민간공장이 참여했다. 여전히 승인공장의 수가 2 배나 많았지만 민간공장이 공역책임자인 都木手를 맡는 등 공역의 주도권의 변화와 함께 종전의 大木이 都木手나 都片手로 바뀌는 등 공장의 호칭도 바뀌었다.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1813년의 향교 이건 때부터 민간공장이 都木手와 片手を 맡는 등 공역책임자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승인공장은 불과 3, 4명이 하위 기술자인 衆工으로 참여하는 등 그 역할과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종전까지 승인공장이 주도하던 지역 조영활동의 주도권이 민간공장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장의 호칭도 바뀌고, 역종도 일부 늘어났다. 노임제가 정착되면서 17세기 후반 이래 중앙의 관영공사에서 공장의 역종이 세분되던 추세가 지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종전보다 기술이 향상된 민간공장들은 이 무렵의 梵魚寺 조영에까지 진출해서 공역을 주도했듯이 사찰 공장조직은 점차 소멸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參考文獻>

『東萊鄉廳鄉校考往錄』, 郷土資料叢書 제 3 집, 경성대학교부설향토문화연구소, 1989
 『東萊史料』 제 2권, 여강출판사, 1989
 『東萊史料』 제 3권, 여강출판사, 1989
 『東萊府誌』, 부록, 부산시 동래구, 1995
 『梵魚寺誌』, 韓國寺誌叢書, 梵魚寺, 1989
 『東萊鄉校實測調查報告書』, 부산시 동래구,

1989
 『東萊府築城謄錄』(1731), 필사본. 규장각도서
 『國淸寺懸板墨書銘』(1825), 현판 목서, 國淸寺 소장
 『海月寺懸板新基重創記文』(1795), 현판 목서, 海月寺 소장
 『海月寺懸板墨書銘』(1766), 현판 목서, 海月寺 소장
 『金井山城復設碑』(1808), 『부산의 문화재』, 부산직할시, 1993
 『伽倻山海印寺誌』, 李智冠 편, 가산문고, 1992
 『直指寺誌』, 韓國寺誌叢書 제 7집, 한국학문 현연구소편, 아세아문화사, 1977
 『肅宗實錄』
 『純祖實錄』
 『變例集要, 下』, 韓國史料叢書 제 16, 국사편찬위원회, 1970
 徐致祥 외, 『범어사』, 빛깔있는 책들, 제 154 권, 대원사, 1996
 金東旭, 『韓國建築工匠史研究』, 기문당, 1993
 金東旭, 「朝鮮後期 建築工匠의 勞賃考」,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권 126호, 1985
 尹用出,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韓國文化研究 2』, 1989
 尹用出, 『朝鮮後期 徭役制와 雇用勞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朴容淑, 「朝鮮祖 後期の 僧役に 관한 考察」, 『부산대학교논문집』 제 31집, 1981
 金甲周, 『朝鮮時代 寺院經濟研究』, 동화출판사, 1983
 金淑瓊, 「朝鮮後期 梵魚寺의 造營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金純一 외, 「조선시대 동래부의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항도부산』 제 13호, 1996
 한국불교연구원, 『범어사』, 한국의 사찰 18, 일지사, 1993

Constructional Activities by the Buddhist Craftsmen of *Bumeo-sa* at *Dongrae* Province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Seo, Chi Sang

(Professor, Tongmyong Univ. of Information Tec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constructional activities conducted by the Buddhist craftsmen of *Bumeo-sa*, especially to focus on the government constructions at *Dongrae* province in the 1700s.

The result is as follows:

1) In the early 1700s, *Bumeo-sa* developed to become a great Buddhist temple and was able to possess a large number of workers and craftsmen. On the base of these workforce and skill, the Buddhist craftsmen of *Bumeo-sa* played the most leading roles for the government constructions until the late of 1700s.

2) Though the conditions of finance and workforce at *Dongrae* province were not good enough at that time, several huge government constructions could be promoted successively, owing to *Bumeo-sa's* supports.

3) Above all, the Buddhist craftsmen in *Bumeo-sa* monopolized the construction of *Dongrae Hyangyo* in the middle of the 1700s. But the private craftsmen got replaced their main roles in the government and temple constructions since the late of the 1700s.

keywords : *Bumeo-sa*, Buddhist craftsmen, *Dongrae*, government constructions,
constructional activities
